

블랙핑크, K팝 여가수 최초 유럽 스타디움 입성



▲ 블랙핑크 '본 핑크' 콘서트 모습. 사진=YG엔터테인먼트

여가수 최초 유럽 스타디움 입성

그룹 블랙핑크가 K팝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유럽의 스타디움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18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Stade De

France)에서 월드 투어 콘서트 '본 핑크' (BORN PINK)의 앙코르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2월 열린 블랙핑크 파리 콘서트보다 2배 이상 커진 규모로 열린 콘서트로, 약 5만5천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블랙핑크는 8월부터는 미국 뉴저지(12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라스베이거스 18일 얼리전트 스타디움, 샌프란시스코(22일 오라클 파크), LA (26일 LA 다저스타디움)등에서 월드 투어 콘서트를 이어 간다.

한편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채널이 개설된 지 약 7년 1개월 만인 17일 오전 5시 36분께 9천만 명을 돌파했다.

블랙핑크는 2020년 7월 비영어권 아티스트 최초로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수 상위 5개 팀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아리아나 그란데, 에미넴, 에드 시런, 저스틴 비버 등 유명 팝스타를 차례로 추월해 2021년 9월 전 세계 아티스트 중 구독자 수 1위에 올랐다.

BTS 정국 '세븐', K-Pop 솔로 최초 스포티파이 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 (SEVEN)이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에서 1위로 진입했다.

16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스포티파이의 최신 차트에 따르면 '세븐'은 1천599만5천378회 스트리밍돼 곧바로 1위에 올랐다." 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한국 솔로 가수 사상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 진입하며 1위로 직행한 것은 정국이 처음"이라며 "'세븐'의 스트리밍 횟수는 '톱 송 글로벌' 신규 진입곡이 기록한 역대 최다치"라고 소개했다. K-Pop그룹들은 그간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위



▲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사진=빅히트뮤직

에 오른 적은 있었으나 '데일리 톱 송 미국'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정국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그간 K-Pop 팬들은 미국 현지의 스트리밍엔 상대적으로 약해 음원 다운로드에 힘을 쏟아 좋은 성과를 이뤄왔던 것을 감안할 때 'Seven'은 한국 솔로 가수의 곡임에도 높은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위업이다. 또 현지 팬들 외 대중들에게까지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세븐'은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최상위권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이효리 상업 광고 복귀 선언에 러브콜 폭주



▲ 상업 광고 출연 복귀 의사를 내비친 이효리. 사진=instagram(tvN)

가수 이효리가 다시 한 번 광고에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우수 기획사들이 발빠르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효리는 지난 2012년 광고 출연을 안하겠다고 밝힌 지 11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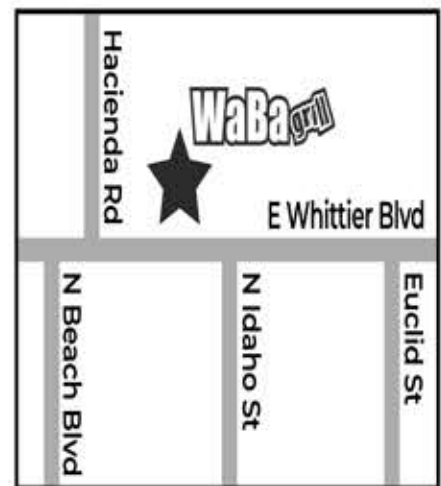
이효리는 13일 자신의 SNS에 "광고 다시 하고 싶어요. 광고 문의는 안테나뮤직으로 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과거 광고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카카오페이, 아시아나항공, 이마트24 등 많은 기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효리는 1998년 걸그룹 핑클의 멤버로 데뷔 후 명실상부한 스타가 됐다. 통신사, 주류, 화장품, 자동차, 스포츠웨어 등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하며 광고계를 장악하며 'CF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2007년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네티즌 투표로 당대 유명 CF 스타들을 제치고 베스트 여자모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이효리는 상업 광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동물 애호가이자 채식주의자인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이 광고의 본질과 상충한다."며 "환경 보호 등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 아닌 상업 광고에는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7년 JTBC '효리네 민박' 출연 당시에도 30억 원에 달하는 광고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